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총서 009
동아시아 지성의 계보와 역사인식 2

근대전환기 동·서양의 상호인식과 지성의 교류

구태훈 외

선인
도서출판

이 책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총서 9권입니다.

근대전환기 동·서양의 상호인식과 지성의 교류

초판 1쇄 발행 2013년 6월 30일

저자 | 구태훈 외

펴낸이 | 윤관백

펴낸곳 |  선인

등록 | 제5-77호(1998.11.4)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324-1 곶마루빌딩 1층

전화 | 02)718-6252 / 6257

팩스 | 02)718-6253

E-mail | sunin72@chol.com

Homepage | www.suninbook.com

정가 39,000원

ISBN 978-89-5933-632-6 93900

· 저자와 협의에 의해 인지 생략.

· 잘못된 책은 바꿔 드립니다.

- 이 책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413-A00003).

권 석 영 | 일본의 초기 제국주의론과 도덕 담론 313

– 국가적 도덕과 세계적 도덕, 또는 국민적 입장과 인류적 입장

1. 머리말 · 313 / 2. 인간의 권리와 본성에 대한 인식 · 316 / 3. 공리주의와 '사회'의 범위 · 320 / 4. 세계적 도덕과 국가적 도덕 사이 · 326 / 5. 제국주의와 '지역적 이타심'의 계보 – 이사비시 단진(石橋湛山) · 331 / 6. 제국주의적 주장의 세계적 도덕으로의 접근 · 335 / 7. 맺음말 · 340

최 규 진 | 우승열패의 역사인식과 '문명화'의 길 343

1. 머리말 · 343 / 2. 문명과 야만의 역사들 · 346 / 3. 문명으로 가는 지름길 · 358 / 4. 근대의 기획, '문명인' 만들기 · 367 / 5. 맺음말 · 379

IV. 동아시아 지성의 교류와 응용

탄 슈 린 | 레지스(Régis)와 강희 『황여전람도』의 제작 385

1. 레지스가 중국에 오다 · 386 / 2. 『황여전람도』의 제작 동기와 그 과정 · 394 / 3. 『황여전람도』의 영향과 레지스의 역할 · 404

왕신레이 | '신사유람단'과 '영선사'를 통해 본 동아시아의 근대화 413

– 동아시아사 연구에서 한국의 지위(地位) 문제를 겸론하여

1. 머리말 · 413 / 2. '신사유람단'과 '영선사'에 대한 개설 · 417 / 3. 조선 관찰자의 눈에 비친 중·일 근대화의 광경 · 425 / 4. 맺음말 · 441

시라이준 |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와

아유카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의 교류 445

– 자이잔로(在山樓)문고 자료를 중심으로

1. 머리말 · 445 / 2. 1890년대의 두 사람 · 448 / 3. 그 후의 두 사람 · 457 / 4. 결론을 대신 하여 · 473 / 부록자료 · 476

‘신사유람단’과 ‘영선사’를 통해 본 동아시아의 근대화

동아시아사 연구에서 한국의 지위(地位) 문제를 겸론하여

왕신레이

1. 머리말

이른바 근대화란 본래 서구 학계의 학술적 발전 과정에서 나온 말로, 대략 전 세계 상이한 지역과 민족 그리고 국가가 농업문명 혹은 유목 문명에서 점차 공업문명으로 이행한 현상을 가리킨다. 1860년대 서구 문명의 충격 속에서 東아시아 세계 역시 자신들의 근대화 진행 과정을 개시하였다. 양무운동과 메이지유신은 각각 중국과 일본의 근대화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양국이 선택한 근대화의 모델이 다 같은 것은 아니었다. “중체서용”과 “전면적 서구화”的 우열은 최종적으로 19세기 말 中(중) · 日(일) 간의 1차 해상 군사 교전에서 결론이 났고 일본의 모델이 옳았음이 증명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런 식의 논단(論斷)은 전반적으로 지나친 단순화로 보이며, 어느 정도 중국의 초기 근대화에 대한 우리의 객관적인 인식을 가리기 쉽다. 승패론(勝敗論)의 옛 틀에서 벗어나서 정치체제 결정론의 집념을 버리고 역사의 정경(情景) 속으로

돌아가 다시 새롭게 객관적으로 근대화의 실제 성과를 드러낼 때 비로소 우리는 동아시아의 근대화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일본이 근대화 과정을 시작할 당시 같은 동아시아 세계의 일원이었던 한국이 이 대열에 바로 참가했던 것은 아니다. 이는 주로 당시 조선왕조가 서방세계의 강렬한 충격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과 내부의 보수사상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한 결과였다.¹⁾ 주지하는 것처럼, 1876년 조선왕조는 ‘운양호 사건’²⁾의 충돌 과정에서 패배한 후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에게 개항을 강요당했다. 『강화도조약』은 사상의 변화를 촉진하였으며, 무비자강(武備自強)과 개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근대화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한국학자들 중에는 1881년(고종 18년)을 한국 근대화 진행 과정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이해 5월과 11월의 ‘신사유람단’과 ‘영선사’ 파견 활동은 이 전환기를 나타내는 두 가지 중요한 상징적 사건으로 이해된다.³⁾

1) 1866년과 1871년 조선은 역사상 두 차례의 “洋擾”를 겪었다. 1866년 조선은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호’를 불태우고 이어서 프랑스 함대의 강화도 점령을 격퇴하였는데, 역사에서는 이 사건을 ‘丙寅洋擾’라고 부른다. 1871년 조선은 江华島를 침입한 미국 함대를 격퇴하였는데, 역사에서 이 사건을 ‘辛未洋擾’라고 부른다. 이 두 사건은 이른바 “鎮壓攘夷” 정책의 군사적 승리로서 조선의 배외 감정을 강화시켰다. 당시 집정자인 대원군은 또 “洋夷侵犯非戰則和主和卖國”라는 문구를 비석에 새겨 朝鮮의 “萬年子孫”들에게 충고하였는데, 이것이 “反洋夷石碑”이다. 이런 정황하에서 조선에서는 결코 근대화 개혁에 대한 절박한 요구가 출현할 수 없었다.

2) 1875년 8월 일본군함 “雲壤號”가 조선의 강화도 근해를 침입하여 정찰·도발을 감행하여 조지진 포대의 수비군과 교전이 벌어졌다. 저항에 부딪힌 일본군은 방향을 바꿔 수비가 약한 丁山島와 永宗鎮을 공격하여 대량의 민간인을 살해하였다. 그 후 일본은 도리어 조선이 일본군함에 포격을 가했다며 조선에게 “問罪”하였다. 조선정부는 내부의 격렬한 논쟁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일본과의 담판을 통해 불평등한 『강화도조약』의 체결에 동의하였다. 조선은 이리하여 일본에게 문호를 개방하게 된다. ‘雲揚號사건’은 ‘강화도사건’이라고도 불린다.

이른바 “신사유람단”과 “영선사”는 조선 고종 정부가 중·일 양국의 근대화 개혁 경험을 시찰하고 학습하기 위해 차례로 파견한 사절단으로, 이들 사절단의 파견 경과 및 이들 사절단의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한국학자들의 상세한 연구들이 있다.⁴⁾ 필자는 “영선사”에 대해 상당한 흥미를 느끼고 연구를 진행하던 중 “신사유람단”的 내용을 접하고 대량의 관련 원자료를 열독한 후, 이 두 사건을 함께 놓고 고찰할 수 있다면 한층 넓은 시야에서 19세기말 전체 동아시아 지역의 근대화 개혁 문제를 토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양무운동과 메이지유신을 기점으로 1880년대까지 중국과 일본의 근대화 진행 과정은 대략 20여 년이 지날 때까지 큰 차이가 없었다. 양자의 성격과 진행과정을 살펴본다면 비록 적지 않은 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각국의 사회계층에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종전 메이지유신의 성공과 양무운동의 실패에 관한 논단은 우리를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쁜지 판별하려는 문제의식 속에서 양자의 차이를 중시·분석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했다. 예를 들면 사상적 기초나 제도의 설계 등의 주제에서 말이다. 그리고 연구 방향 역시 경험의 총결과의 검토로 변화시켰다. 전반적으로 말해 이런 방식의 연구는 결과론적 해석(後見之明)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또 우리로 하여금 역사의 많은 구체적 사항들을 소홀히 여기도록 만들기 쉽다.

³⁾ 权錫奉, 「領選使行에 대한 考察－軍械學造事를 中心으로－」, 『歷史學報』 第17·18合輯, 1962, 277쪽 참고.

⁴⁾ ‘紳士遊覽團’과 ‘領選使’에 관한 한국 학자들의 대표적 연구로는 다음 논문들을 참고할 수 있다. 郑玉子, 「紳士遊覽團考」, 『歷史學報』第27輯, 1965, 105-142쪽; 权錫奉, 「領選使行에 대한 考察－軍械學造事를 中心으로－」, 『歷史學報』第17·18合輯, 1962, 277-312쪽.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중·일 양국의 근대화 진행 과정의 공통점은 없었는가? 이런 사고는 어쩌면 우리가 구상적이고 세부적인 요소들에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해 줄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적인 상황과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생산품 등에서 말이다. 그리고 세부적인 대비를 통해 답안의 도출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이런 연구를 전개하려고 할 때 결코 자료가 적다고 할 수는 없다. 말할 것도 없이 중국과 일본의 사료에는 많은 자료가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전개하려는 작업은 좀 다른 시각의 고찰이다. 곧 1880년대 조선 고종 정부가 일본에 파견한 ‘신사유람단’과 중국에 파견한 ‘영선사’의 관찰 기록을 활용하여 중·일 양국에서 근대화 개혁이 시작된 거의 같은 시기의 사회 각 계층의 구체적 정황을 당시 사람들의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위와 같은 시각에서의 문제 접근은 주로 두 가지 방면의 고려한다. 하나는 조선 사절의 기록이 제3자적 입장의 관찰이기 때문에 중·일 양국의 기록에 비해 보다 객관적이고 상세하며, 따라서 이를 기록이 양국의 근대화 정황을 비교하는 데에 유익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러한 연구가 한·중·일 3국을 동시에 동아시아 근대화라는 하나의 범주에 놓고 토론하게 함으로써 초기 동아시아 근대화 연구에서 “한국부재(韓國缺位)”라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신사유람단’과 ‘영선사’ 파견은 이후 한국 근대화 진행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필자는 동아시아 근대화 진행 과정의 역사에서 한국이 수행한 역할은 관찰자나 추종자가 결코 아니라 직접적인 참여자였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역시 이점에 기초하여 현재 학계에서 보편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종체적인 동아시아 연구에 하나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신사유람단'과 '영선사'에 대한 개설

1876년 일본과의『강화도조약』이 체결되면서 조선은 개항을 강요받았다. 이 사건은 조선정부를 크게 자극하였지만, 개화에 반대하는 국내 보수세력의 목소리가 높아 관련 조치는 완만하게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1881년에 가서야 세 건의 큰 일이 성공적으로 행해지는데, 그 하나는 이해 연초 청조의 총리사무아문(總理事務衙門)을 모방하여 정부 안에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이라는 개화정책 추진 기구를 만든 것이다. 나머지 두 가지는 바로 '신사유람단'과 '영선사'를 파견한 일이다. 당연히 국내 보수세력의 거센 반발을 누르고 1년 안에 이 세 가지 일을 완수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에서 학자들은 1881년이 한국 근대화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개화정책을 실시하려던 조선왕조에게 중국과 일본은 배워야 할 모범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측 역시 조선이 사절단을 파견하여 배우려는 것을 환영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下에서 조선의 결정은 양쪽에 각각의 사절을 파견하는 것이었는데, 그 배후의 사정은 달랐다. 일본에 대한 태도를 보면, 조선정부는 주로 상대방의 속사정을 정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때문에 일본에 대해 시종일관 일종의 경계심을 유지하였으며 또 상대방이 핵심적 기술을 전수해 줄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정부는 중국에 대해서는 교섭을 개시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곧 무기 제조 기술의 학습 및 기계와 군사 장비의 직접 구매 같은 가장 화급한 요구들을 제시하였다. 바로 이런 배경 아래 조선정부는 1881년 5월 일본에 '신사유람단'을, 또 1881년 11월에 중국에 '영선사'를 차례로 파견하였다.

1) 신사유람단

“조사관찰단”이라고도 불리는 “신사유람단”은 일찍이 1876년 일본과 조선 간의 “병자수호조약”(즉, 강화도조약) 체결 논의 당시 일본 측이 먼저 조선의 조신(朝臣)과 사신(士紳)들을 초청하여 일본을 유람하고 시찰하게 하자고 제의하였던 것으로, 당시 조약 체결 논의에 참여했던 수신사 김기수는 고종에게 보고할 당시 “저들의 물정을 상세히 정탐하는 것이 긴급하고 절박한 일이니, 자주 탐지함이 마땅히 옳습니다”라고 건의하였다.⁵⁾ 그러나 당시 조선정부가 바로 일본 측의 의견을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정부는 스스로 일본에 시찰단을 파견하려는 의향이 생긴 이후에야 여러 차례 자발적으로 일본공사에게 전에 일본이 제기했던 조사유람의 실행 가능성을 타진하였고, 최종적으로 쌍방이 이 일에 대한 합의에 이르게 된다.

‘신사유람단’은 12명의 조사(朝士)로 구성되었다. 그 성명은 모두 찾아 볼 수 있는데, 각각 조준영·박정양·엄세영·강문형·조병직·민종묵·이현영·심상학·홍영식·어윤중·이원희·김강원이다. 이들의 관직은 정5품에서 정3품까지 다양했으며, 모두 양반 출신이었다. 조사들은 각각 4명의 수행원을 대동하였으므로 유람단의 총원은 모두 62인이었다.⁶⁾ 지적하고 싶은 점은 “신사유람단”이라 호칭에 대한 문제이다. 사실 이 용어는 문헌 기록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데, 당시 조선정부가 이들에게 부여한 관의 공식 직함은 ‘동래부암행어사(東萊府暗行御史)⁷⁾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 사건에 대해 아래의 기록만이 남아

⁵⁾ 『日省錄』, 권177, 丙子 二月 初六條.

⁶⁾ ‘紳士遊覽團’의 인원 구성의 상세한 정황에 관해서는 鄭玉子, 「紳士遊覽團考」, 114-117쪽을 참고할 수 있다.

있다. “올해 정월 조준영·박정양·엄세영·강문형·조병직·민종묵·이현영·심상학·홍영식·어윤중 등에게 비밀리에 명을 내려 일본에 가서 시찰하도록 하였는데, 명칭을 동래부암행어사라고 하였고, (이) 때문에 국사에는 단지 그 명을 집행한 결과(復命)만을 기록하고 있다. 그 복명들은 각각의 견문기록(聞見記獻) 속에 있으며 번다하여 기록할 수 없다.”⁸⁾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조선왕조가 이 파견 활동을 가능한 비밀리에 진행하기를 희망했다는 점인데, 비밀 유지가 필요했던 것은 주로 국내 보수 사인(士人)들의 불만을 가능한 피하기 위해서였다.

유람단의 경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1881년 5월 7일 부산에서 일본 상선 안녕환호(安寧丸號)를 타고 출발하여 다음날 나가사키(長崎)에 도착하였다. 14일 오사카(大阪)에 이르렀고 17일 교토(京都), 21일 고베(神戶), 25일 도쿄(東京)에 도착하였다. 5월 25일에서 8월 7일까지 동경에서 74일간 머물렀다. 그동안 요코하마(橫濱), 오사카(大阪) 등을 시찰하였다. 8월 7일 이후 어윤중, 김강원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유람단원들은 몇 조로 나뉘어 차례로 귀국하였고 8월 25일 부산에 돌아왔다.⁹⁾ 유람단원들의 관련 기록을 살펴 볼 때 한 가지 지적할 만한 것은 유람단 일행에 대한 일본 측의 접대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인데, “일인들이 조의(朝議)에서 신(臣)들의 내방(來訪)이 수호(修好)를 더욱

⁷⁾ 東萊府는 곧 지금의 한국 남부의 부산 지역이다. 暗行御史는 조선왕조 시기 국왕이 직접 임명한 지방순찰 관원의 명칭으로 중국사의 이른바 鈎差大臣과 유사하다.

⁸⁾ 『高宗實錄』卷18, 高宗十八年 十二月 十四日條.

⁹⁾ 遊覽團의 구체적 경로는 鄭玉子, 「紳士遊覽團考」, 122-126쪽을 참고할 수 있다. 東京에 체류한 두 사람 중 魚允中은 그해 연말에야 귀국하여 復命하였고 金鍾元의 이후 종적은 기록에서 발견되지 않아서 명확히 알 수 없다. 鄭玉子, 「紳士遊覽團考」, 125·119쪽 참고.

돈독히 하려는 것이라고 하면서 사전에 연도(沿道)를 정비하고 성실히 접대하였습니다. 또 외무성의 속관(屬官)을 파견하여 도중에서 영접하였고, 지나는 곳의 지방관들은 숙소(店社)로 내견하거나 식사에 초대하였습니다.”¹⁰⁾

조선정부가 12명의 조사에게 맡긴 임무는 전반적으로 일본 각 부문의 상황을 살펴 상세히 기록하고 귀국하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었다. 조사들의 관찰 대상은 모두 편중된 측면이 있었다. 현재 남아 있는 문헌을 통해, 대체로 다음과 같이 단원들이 임무를 분담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박정양의 관찰 대상은 일본 내무성과 농상무성이었고 민종묵은 외무성, 어윤중은 대장성(大藏省), 조준영은 문부성, 엄세영은 사법성, 강문형은 공부성(工部省), 홍영식은 육군의 정황, 이현영은 세관의 정황을 관찰 대상으로 하였다.¹¹⁾ 각각의 책임 아래 제출된 전문적인 관찰 보고서 이외에도 몇몇 단원들은 『문견사건(聞見事件)』이라는 명칭의 보고서를 저술하기도 하였다. 이밖에 몇몇 수행원들은 독자적인 기행기(紀行記)도 남겼는데,¹²⁾ 그 내용은 일상견문에 치

10) 趙准永, 『聞見事件』, 奎章閣 所藏 藏書號:奎1311-1, 1-2쪽.

11) 12 이상의 정황은 주로 遊覽團 구성원들이 귀국 후 제출한 보고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그 예로는 朴定陽, 『日本內務省及農商務省視察書啟』(奎章閣所藏, 藏書號:奎2577); 樸定陽, 『日本內務省視察記』(奎2576, 2449); 樸定陽, 『日本農商務省視察記』(奎1150, 2450); 閔種默, 『日本外務省視察記』(奎3712, 3015, 3711); 閔種默, 『日本各國條件』(奎1835); 魚允中, 『日本大藏省視察記』(奎6266); 趙准永, 『日本文部省視察記』(奎2871, 7765); 嚴世永, 『日本司法省視察記』(奎3703); 蓮文馨, 『日本工部省視察記』(奎1834); 洪英植, 『日本陸軍總制』(奎3271); 洪英植, 『日本陸軍操典』(奎3710, 3702); 李憲永, 『日本稅關視察記』(奎2451)를 들 수 있다. 그 밖에 네 사람 金鍊元·沈相學·趙秉稷·李元會의 관련 보고서 자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鄭玉子 教授는 기타 자료에 근거해 趙秉稷의 고찰대상은 稅關情況이 있고 李元會의 고찰대상은 軍事情況이었다고 추정하였다. 鄭玉子, 「紳士遊覽團考」, 119쪽 참조.

12) 이런 문헌에는 趙准永, 『聞見事件』(奎1311-1); 閔種默, 『聞見事件』(奎1311-2); 李

중된 기록들로 그 속에는 일본 사회의 근대화 발전 정황과 관련된 것들이 다양으로 들어있다.

‘신사유람단’의 영향에 대해 말한다면, 이 파견은 처음에는 단지 정보 탐지가 목적이었지만, 유람단원들이 귀국하여 제출한 대량의 관찰 보고서들이 이후에 끼친 영향은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것이었다. 일본 근대화 개혁에 관련된 이 정보들은 조선정부 내에서 당초 개화의 관점 을 갖고 있던 사대부들에게 의심의 여지없이 강한 자극제가 되었고 보수적인 사대부들에게도 역시 적지 않은 자극을 주었다. 비록 당시의 역사적 조건 아래 그 영향이 신속하고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유람단이 가져온 일본에서의 경험 이 궁극적으로는 점진적인 형태로 한국 근대화로의 변혁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영향은 특히 근대 국가제도의 설계에서 두드러졌다.

2) 영선사

일본에 파견한 ‘신사유람단’에 비해 조선정부가 중국에 파견한 ‘영선사’의 목적은 보다 명확하고 직접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중국에 사람을 파견하여 군기 제조 기술을 배우고 동시에 필요한 기기 설비를 구매하여 가능한 빨리 국내에 군기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청정부와의 교섭이 있고 얼마 후 청정부가 이 요구에 응답하였다. 이에 1881년 11월 17일(음력 9월 26일) 조선정부는 김윤식¹³⁾을 ‘영선사’로 하는 학생

¹³⁾ 奚永, 『聞見事件』(奎1311-3); 嚴世永, 『聞見事件』(奎1311-4); 蕤文馨, 『聞見事件』(奎15250); 李憲永, 『東遊錄』(古6370-2); 수행원 蕤晉馨, 『日東錄』(奎7774); 수행원 宋憲斌, 『東京日記』(古4710-4)가 있다.

과장인 38명이 포함된 대규모 사절단¹⁴⁾을 중국 천진으로 파견하였다. 이 사절단은 1882년 1월 25일(음력 1881년 12월 6일) 천진에 도착하였고 그 후 장인과 학생들은 각각 천진 기기제조국의 동·남 양국에 배치되어 각종 제조 기술, 특별히 군기 제조 기술을 배우게 된다. 1882년 12월 9일(음력 10월 29일) 마지막으로 일단의 인원이 조선에 돌아오기까지 이 활동은 전후 거의 1년 동안 지속되었다. ‘영선사’의 파견 정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료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영선사’ 김윤식의 관련 기술이다.¹⁵⁾

¹³⁾ 金允植(1835-1922), 字는 淘卿 號는 雲養이다. 清風金氏 양반 명문世家에서 태어났다. 8세 때 부모가 모두 죽자, 그 후叔父와 함께 생활하였다. 16세 때 漢城에 와서 조선의 大儒인 俞莘換, 조선 개화사상의 비조인 樸珪壽에서 차례로 수학하면서 비교적 일찍 救國圖強적인 개화사상을 형성하였다. 그는 1865년 恩蔭로 健寢郎에 임명되었고 1874년 文科에 及第하였다. 그 후 順天府使, 江華留守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1881년 그는 吏曹參議의 직함을 갖고 “領選使”로서 天津에 파견되어 學徒와 工匠들의 學習을 인솔함과 동시에 清朝의 工業製造業의 發展情況을 고찰하였고 그 사이에 또 清朝 洋務派 관원들과 많이 접촉하였다. 1882년 조선의 “壬午軍亂” 당시 그는 清朝에 병사를 파견해 난을 평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후 高宗 政治權力 강화에 협력하면서 친청 온건 개화파의 대표적 인물이 되었다. 그는 조선에서 機器局, 근대적 海關의 창립에 참가하였고 또 外交活動에 적극 참여하였다. 金允植, 『金允植全集』(全二冊) 第一冊, 解題: 韓國國學文獻研究 編, 『韓國近代思想叢書』[(韓國)亞細亞文化社, 1980年(初版), 2005(再版)], v-x쪽 참조. 그 밖에 劉順利, 『王朝間的對話－朝鮮領選使來往天津日記導讀』(寧夏人民出版社, 2006), 導言, 1-2쪽 참고.

¹⁴⁾ 문헌기록에 따르면, 이 사절단의 姓名 중에서 상고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69人이다. 金允植의 『領選日記』 속에는 사절단원들의 명단이 있는데, 金允植은 여기에서 또 “위 咨文에 기재된 사람은 모두 69人이다. 이외에 學徒 등이 사직으로 대동한 심부름꾼 역시 많았다”라고 말했다 金允植, 『領選日記』, 成均館大學校 東아시아學術院·大東文化研究院 編, 『燕行錄選集補遺』(全三冊), 中冊 (成均館大學校 東아시아學術院, 2008), 420-423쪽. 이 사절단의 실제 인원수는 69인보다 많았음을 알 수 있다.

¹⁵⁾ 이런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앞서 인용한 金允植, 『領選日記』, 復旦大學 文史研究院과 成均館大學校 동아시아학술원 合編, 『韓國漢文燕行文獻選編』, 第30冊 (復旦大學出版社, 2011)에 수록; 金允植, 『天津談草』는 [翰林基中

조선의 학생과 장인들이 천진 기기제조국에 들어가 학습하게 되자, 김윤식은 그들이 각각 어떤 기술을 배우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기록 하였으며, 또 동·남 양국의 수장을 통해 『조선학도근만초(朝鮮學徒勤慢草)』가 김윤식에게 정기적으로 전해졌다. 이들 자료에서는 조선의 학생·장인들의 학습 진전 상황을 볼 수 있다. 김윤식 자신이 주관한 것에서 양국의 보고에 이르기까지 이들 자료를 통해 조선 학생·장인들의 천진에서의 학습 상황에는 개인차가 있었는데, 순조롭게 진행되어 성과가 있었던 경우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여러 원인들로 도중에 중단되기도 하였다. 천진에 있는 동안 김윤식은 가끔 기기국을 방문하였는데, 장인과 학생들의 학습을 조사 감독하는 한편 기기국 내의 각 공장들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하였다. 김윤식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그는 기기국 각 공장들의 생산 물품, 핵심 기술, 제조 과정, 생산 능력과 생산량, 자금 소모 등 각 방면에 대해 깊이 있고 상세한 조사를 진행하였다.¹⁶⁾ 김윤식의 대량의 기술 속에서 우리는 중국의 근대화 정황, 특히 기계 제조공업의 발전 광경에 관련된 많은 자료를 발견할 수 있다.

‘영선사’ 파견에 대해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사행의 사명 중에서 ‘군 계학조사’에 대한 언급은 그중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윤식이 스스로 언급한 바에 따르면, “(나는) 기기학도 70여 명을 이끌고 연 말 천진에 도착하여 여러 차례 소전(少荃, 리홍장(李鴻章))을 찾아갔는데, 필담을 나눈 종이가 산더미 같았다. 대개 ‘의약사’가 십중팔구였고

編, 『燕行錄全集』(東國大學校出版部, 2001), 第93冊에 수록; 金允植, 『陰晴史』, 『韓國史料叢書』第六(國史編纂委員會, 1958).

¹⁶⁾ 王鑫磊)「帝國斜陽下的親密接觸:談朝鮮官員金允植的天津領選」, 『復旦學報』, 2010年第2期, 30쪽 참조.

‘학조사(學造事)’는 불과 한 두 가지뿐이었다”고 하였다.¹⁷⁾ 여기에서 언급된 ‘의약사’란 당시 미국이 요구한 조선과의 통상조약 체결 사무를 가리킨다. 김윤식은 ‘영선사’로서 보정(保定)과 천진에 있으면서 리홍장 을 수뇌로 하는 청조의 많은 양무파 관원들과 여러 차례 필담을 나누었다. 필담 내용의 대부분은 조·미간 조약 체결과 조선의 개항이라는 두 문제에 집중되었다. 1882년 5월 22일(음력 4월 초6일) 청정부의 조정 아래 조·미 양국은 조선 제물포에서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다. 적지 않은 학자들은 조·미 간의 조약 논의 부분을 중요하게 인식하지만 사실 ‘영선사’ 파견에서 무기 제조 학습과 미국과의 조약 체결,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할 것이다.¹⁸⁾

‘영선사’ 파견을 평가할 때 어떤 한국학자는 이 활동을 실패한 것으로 인식한다. 이는 이 기간 중 조선 국내에서 발생하였던 임오군란이 이 활동을 도중에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실패론의 지나친 절대화라고 생각한다. 1883년 6월 조선 역사상 최초의 기기국 이 한성 삼청동 북창에 정식으로 개설되었고 김윤식은 자연스럽게 이 기기국의 수장의 한 명이 되었다. 기기국의 순조로운 운영을 위해 조선정부는 특별히 청조에 요청하여 4명의 장인을 초빙하여 기기국 내에서 제조법을 교습하게 하였다. 김윤식의 기술에서 천진에 파견된 학생과 장인들의 마지막 행방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조선의 북창 기기국이 단시간 안에 바로 조직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면 중국으로 갔던 장인과 학생들이 초창기 북창 기기국의 조성 역량이 되었다고 대략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북창 기기국의 창립이라는

17) 『天津談草』, 210-211쪽.

18) ‘領選使’ 파견 중 朝·美 조약 체결 논의에 관한 서술로는 역시 『帝國斜陽下的親密接觸：談朝鮮官員金允植的天津領選』을 참고할 수 있다.

사건은 앞의 '영선사' 파견과 필연적 인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영선사'의 한국 근대화 진행 과정에 대한 영향 역시 대체로 이 점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3. 조선 관찰자의 눈에 비친 중·일 근대화의 광경

1) '신사유람단'이 본 일본의 근대화 광경

'신사유람단'은 '저들의 물정을 상세히 정탐'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으므로 그 단원들의 당시 일본사회 각개각층의 정황에 대한 관찰은 매우 치밀하였다. 그들이 귀국 이후 제출한 관찰보고 및 견문록에는 일본의 정치제도, 정부조직의 설치, 국민경제, 공업생산, 그리고 일상생활 등에 대한 아주 상세한 기록이 남겨져 있다. 이를 자료들을 한데 묶는다면, 근대화 개혁 이후 거의 20년이 지난 1880년대 일본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는 몇 가지 문제를 선별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정부조직의 설치

일본의 정체와 정부조직의 설치 정황에 대한 것은 주로 유람단원들의 각종 『시찰기(視察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각종 『시찰기』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일본 내무성, 농상무성, 외무성, 대장성, 문부성, 사법성, 공부성, 육군성 그리고 세관(海關) 등 거의 모든 정부조직을 포괄한다. 각 『시찰기』의 기록은 매우 상세해서 짧게는 70-80페이지에서 길게는 수백 페이지에 이른다. 민종목의 『일

본외무성시찰기』는 8권 4책에 달하는데, 그 목록을 간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외무성

- (1) 연혁과 직제
- (2) 직장사무
- (3) 각국사무장정
공신국·취조국·기록국·서무국·회계국
- (4) 교빙(交聘) 통상
각규칙·공문서식·상세론례·각국조약·거류조약·무역칙류(해관 세칙·무역장정·통상장정)·육항개항·세관규례·각국세칙¹⁹⁾

사실 대부분의『시찰기』들은 모두 유사한 체례(體例)에 따라 저술된 것들이다.²⁰⁾ 이들『시찰기』는 특정 유람단원 한 사람의 눈에 비친 모습에 따라 작성된 것이기도 했지만 당연히 당시 일본과 유사한 정부 조직의 설치에 대해 참고하기 위해 작성된 문헌이었다. 이 때문에 여기에 반영된 내용은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정황도 있고 적잖이 주관적인 평가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시찰기』 자료가 도달한 상세함은 그대로 모방이 가능할 정도였다. 이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후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이런 자료들이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역시 타당하다. 물론 일본 정부조직 설치의 실제 정황은 유람단원들이 별도로 작성한『문견사건』 자료에도 반영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다시 서술하지 않겠다.

¹⁹⁾ 閔種默, 『日本外務省視察記』, 卷3712; 3015; 3711.

²⁰⁾ 구체적인 내용은 鄭玉子 교수가 「紳士遊覽團考」에서 摘錄한 視察記 目錄을 참고 할 수 있다. 해당 논문, 136-139쪽.

(2) 사회 견문

『시찰기』 자료와 비교할 때 유람단원들이 남긴 『문견사건』 류(類)의 자료 그리고 몇몇 기행기 류의 자료들은 당시 일본 사회 각 방면의 정황에 대해 보다 직접적이고 생동감 있게 기록하고 있다. 이들 자료들은 매우 흥미롭고, 이 속에 반영된 일본 사회의 정황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다. 이들 기록은 19세기 말의 일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에게도 가치가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근대화 변혁이 사회생활에 준 실질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몇몇 자료들을 선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유람단원들이 일본에서 목격한 많은 것들은 그들이 보기에 매우 신선하였다. 그리고 그중의 절대다수는 역시 소위 근대화의 산물들이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① 철도

【민족주의 기록】

철도는 명치 2년부터 시작하여 동경에서 요코하마까지 70여 리, 고베(神戸)에서 오사카까지 90여 리, 오사카에서 교토까지 120여 리가 놓였고 교토에서 오쓰(大津)까지, 오쓰에서 에치젠(越前) · 쓰루(敦賀)까지가 연이어 완공되면 장차 전국이 연결된다고 한다. 이미 건설된 구간은 300여 里에 불과하지만 건설비용은 110여 만원에 이른다.²¹⁾

【조준영의 기록】

기차 철로는 여행객과 화물을 실어 나르기 위한 것이다. 산골짜기를 뚫고 하천과 계곡에 다리를 놓아 연결한다. 도쿄에서 요코하마까지, 고베에서 오사카 · 교토(西京) · 오쓰 및 에치젠 · 쓰루까지 모두 300여 리이다. 철조로 길을 놓고 그 위로 바퀴가 가는데 딸린 차량의 수는 30량이다. 앞차가 출발하면 뒤차가 꼬리를 물며 따라간다. 한 시간에 100여 리를 간다. 수십 리마다 일국(一局)을 두어 여행객들이 타고 내리는 곳으로 삼는다.²²⁾

²¹⁾ 閔種默, 『聞見事件』, 卷1311-2, 8쪽.

일본의 철도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기록은 강문형의 수행원이었던 강진형이 편찬한 기행기 『일동록(日東錄)』에서 보인다.

먼저 도쿄·요코하마 구간은 경오년 3월부터 건설하기 시작해서 임신년 9월에 준공되었는데, 리로 계산하면 73리쯤 된다. 무릇 그 길을 닦기 위해 앞서 산을 만나면 뚫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 그 곳기가 화살과 같아서 조금의 굴곡도 없다. 그 평평함은 솟돌 같아서 역시 고저가 없다. 이에 철 막대기를 4·5보 간격으로 길 위에 횡으로 묻고 다음으로 철 바퀴를 실을 철선체 4조를 철 막대기 위에 이어서 놓는다. 대개 철선의 가운데는 구덩이가 파여 있고 아래위의 폭이 넓다. 철 바퀴는 한쪽이 볼록하고 바깥쪽이 평평하다. 바퀴의 볼록한 부분이 철선 속에서 회전하는데, 조금도 어긋남도 없다. 설치된 4조 중 2조는 본선이라고 하고 2조는 부선이라 하는데, 각각 오는 차와 가는 차에 차이를 두어 서로 부딪쳐서 파괴되지 않도록 한다. 또 지선이 있어서 철 바퀴의 방향을 바꾸는 곳으로 사용한다. 차제(車制)는 한 량이 마치 2간 방과 같은데, 양옆 깔린 널판이 약간 높아서 걸터앉을 수 있고 사면에 뚫린 창이 열리고 닫혀서 시원한 바람을 썰 수 있다. 한 량에 수십 명을 수용할 수 있고 상등·중등·하등의 구별이 있다. 등별로 요금을 걷는데, 고하에는 큰 차이가 있다. 화륜은 단지 앞 차량에만 설치되어 있고 차례로 나사를 사용하여 차량을 이었는데, 한 량 한 량 이어진 것이 수십 량에 달한다. 화륜하나가 한 시간에 100여 리를 가는데, 빠르기가 마치 번개가 지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그다지 흔들리지 않는다. 20리마다 객사 하나를 설치하고 관인을 두어 여행자들을 검사하고 요금을 거둔다. 승차하는 사람에게 표를 주고 하차하는 사람에게서 표를 거둔다. 표에는 모두 상백·중청·하홍 삼등의 구별이 있고 이것을 살펴서 요금을 거두는데, 조금도 문란함이 없다. …… 달리거나 정지할 때에는 반드시 알리는 신호가 있다. 정지할 때는 적색기를 사용하며 빨리 달릴 때는 백색기를 사용하고 천천히 갈 때는 녹색기를 사용한다. 야행에는 등의 색깔로 나타낸다. 싣는 것은 비록 보따리 속의 물건이나 작은 동물에도 모두 정해진 요금을 계산하는데, 30근 이하는 5리에 4전, 10리에 8전, 60근 이하는 5리

22) 趙淮永, 『聞見事件』, 卷1311-1, 6쪽.

에 6전, 10리에 15전이다. 데리고 탄 동물은 5리는 반전, 10리는 1전이고 100리까지는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²³⁾

또 하나의 기행기 자료, 즉 이원희의 수행원이던 송현빈의 『동경일기』에는 자신이 직접 기차를 타고 교토에서 비와호(琵琶湖)까지 갔던 체험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철도 건설 정황이 언급되고 있다.

교토(京都)과 비와호 사이에는 커다란 골짜기가 있는데, 산을 뚫어 구멍을 내서 철로를 통한 것이 5리이다. 구멍은 무지개 모양인데, 모두 자줏빛 벽돌을 석회로 매워서 쌓았다. 거의 사람의 힘을 쓰지 않았다고 하니, 그 부강함을 알 수 있다.²⁴⁾

② 우체국

일본 우체국 설치에 대해서는 민종묵의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다.

우편국은 명치 4년에 처음 설치된 이래로 12년이 되었다. 국내의 도부(都府) · 시읍 및 연맹 각국의 문서 · 물품 등 왕복 · 체송건들은 그 양의 경 중과 지역의 원근에 따라 그 요금을 정하는데, 법규가 아주 많다. 또 지소(支所)도 대략 3,900 소에 이른다.²⁵⁾

또한 강문형의 아래와 같은 기록도 있는데, 그 속에는 우체통 · 집배원 · 우표 및 우편료 등에 대해 꽤 자세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우체국을 개설하고 관리와 집배원을 두는 것은 공사가 소식을 주고받는 데 편리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법을 살펴보면, 마을의 가도마다 우체통을 세우는데, 동으로 주조하거나 돌로 만든 것들이다. 서신을 보내려는 자는

²³⁾ 姜晉馨, 『日東錄』, 卷7774, 39-40쪽.

²⁴⁾ 宋憲斌, 『東京日記』, 卷章閣, 古4710-4, 14쪽.

²⁵⁾ 閔種默, 『聞見事件』, 8쪽.

거리에 상관없이 다만 서신이 가는 곳의 지명에 전표를 부쳐서 우체통에 두면, 집배원들이 시간마다 수거하고 그 지역별로 분류하여 다음 우체통에 넣고 그 다음 집배원들이 다시 수거하여 다음으로 전하는데, 이것으로 기준을 삼는다. 1일에 100리를 간다. 외국의 먼 곳까지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 관에서 먼저 전표를 제조하는데, 몇 원에서 몇 전에 이른다. 돈을 받고 표를 팔면, 서신을 부치는 자는 그 서봉(書封)의 경종에 따라 전표를 사서 서봉에 붙인다. 무게가 1전이면 전표 10개를 붙이고 무게가 2전이면 전표 20개를 붙인다. 무게가 3전 이상이면 가격은 배가 된다. 1년 매표금은 차세와 비슷하다고 한다.²⁶⁾

③ 전보

전신국 즉, 전보국의 설립에 대해서는 조준영의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다.

도교에 중앙국을 설치하여 사방을 통괄한다. 그 제도는 동으로 선을 만들어 육로에 가설하고 물속에 침연하여 늘어뜨린다. 양 귀퉁이에 계기가 있어서 음신을 전달하여 서양 글자 24자로 서로 소식을 전한다. 비록 천만리라고 눈 깜짝할 사이에 전달되며, 글자의 다과에 따라 또한 그 요금을 지급한다. 요지를 택하여 분국을 설치하는데, 분국은 80여 所가 있으며 사람들이 사적으로 가설하여 관선에 연결하고자 하면 정부가 그것을 허가한다.²⁷⁾

강진형이 편찬한 『일동록(日東錄)』의 전보에 대한 기록도 상당히 상세하다.

전기보는 동으로 선을 만드는데, 직경이 매우 가늘다. 서양인들이 만든 전기를 사용하며, 수상이나 수중에 가설하여 선을 연결하고 양 귀퉁이에는

²⁶⁾ 姜文馨, 『聞見事件』, 21-22쪽.

²⁷⁾ 趙淮永, 『聞見事件』, 5-6쪽.

계기를 연결한다. 전하는 소리는 비록 만리여도 즉각 도달한다. 전기가 만리에 소식을 전하는 데는 이쪽과 저쪽에서 단지 접시 모양의 물건 하나에 의지한다. 그 속에는 바늘이 있고 네 틀레로 글자가 있는데, 바늘이 돌아서 글자를 가리키고 가리키는 것에 따라 기록하면 한 편의 글이 된다. 예를 들어 원(元)을 가리키고 형(亨)을 가리키고 이정(利貞)을 가리키면 원형이 정(元亨利貞)이라고 하는 그런 류이다. 이쪽의 바늘이 돌 때 저쪽의 바늘 역시 돈다.²⁸⁾

이밖에 민종묵의 기록에서 우리는 당시 전보 발송 가격을 알 수 있다.

도쿄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오카루국(小樽局)까지는 일문(日文, 和文) 48전, 구미문(歐美文, 橫文) 2원 50전이고 가장 서쪽에는 가고시마국(鹿兒局)까지는 일문(和文) 49전, 구미문(橫文) 2원 50전이다.²⁹⁾

④ 병원

민종묵은 그가 교토(京都)에 있을 때 목격한 병원의 풍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병원은 역시 동구내(東區內)에 있다. 건물이 넓고 원내에는 각각의 장기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26명, 견습이 300명이다. 일 년을 통틀어 원외·원내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는 70,000여 명이다. 병을 치료하는 도구는 모두 은이나 동을 이용해 만든 자르고 벗기고 침을 놓는 데 쓰는 도구이다. 각기 20,000여 종이 있는데, 각각 그 수를 알 수 없을 만큼 많다. 침상이 늘어서 있고 또 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각종 기기가 설치되어 있다. 오로지 서양에서 만든 물약을 사용하는데, 서양 교사를 초청하여 만든 것 들이라고 한다.³⁰⁾

28) 姜晉馨, 『日東錄』, 43-44쪽, 姜晉馨은 자신이 목격한 電報 操作 情況을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電報의 작동 원리 및 각국 電報 건설의 간단한 소개를 상세히 조사 기록하여 수천 字의 방대한 “電信之法”을 작성하였다. 『日東錄』, 44-52쪽.

29) 閔種默, 『聞見事件』, 8쪽.

이밖에 송현빈은 오사카에 있는 병원을 시찰한 후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는데, 그 속에는 당연히 서양 의학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생긴 오해도 있었다.

병원 옆 좌우로는 길게 행랑이 늘어져 있다. 병을 치료중인 사람이 무려 수백 명이고 의사 역시 이처럼 많다. 병을 치료하는 용구는 대부분 자르고 벗기고 뚫어서 통하게 하는 것들로 체증이 있다면 기다란 그물 같은 것으로 입에서부터 아래로 뚫고 대변이 통하지 않으면 작은 통을 항문 속에 집어 넣는다. 탕제를 쓰지 않고 오로지 환약과 가루약을 쓴다. 피부를 벗긴 인형에는 구·장부가 표현되어 있는데, 정말 놀랍다. 환자가 죽었을 때는 장부를 가르고 살펴서 병이 생긴 곳을 검사한다. 그 기술이 아주 정교함을 알 수 있지만 그 마음 쯤은 정말 잔인하다. 이것이 어찌 어진 사람이 행할 바이겠는가? 괴이하고 두렵다.³¹⁾

⑤ 쾌속선

마찬가지로 『동경일기』에서 우리는 일본 국내 수로를 활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대형 증기선－쾌속선(飛脚船)에 대한 기록을 발견하게 된다.

도쿄에서 타는 미쓰비시사(三菱社)의 쾌속선 히로시마 마루호(廣島丸號)는 배의 길이가 60간이고 넓이는 8간, 높이는 7-8장이다.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세 층이 있는데, 상층과 중층은 모두 상등의 사람이 머문다. 양쪽으로 커다란 방이 꾸며져 있으며 중간에 작은 방이 꾸며져 있는데, 방 한 칸은 겨우 한 사람이 누울만하다. 필수적으로 담요가 깔려있고 비단 장막이 드리워져 있다. 그 중에 왕왕 긴 탁자가 수십 간에 걸쳐 놓여 있으며 탁자 위에는 비단 보와 금은·유리 등이 놓여있고 보 위에는 다기와 술병 등이 들어져 있으며, 위쪽으로는 유리가 설치되어있어서 화 트여있다. 방

³⁰⁾ 閔種默, 『聞見事件』, 19쪽.

³¹⁾ 宋憲斌, 『東京日記』, 8-9쪽.

마다 유리동이 걸려서 환하게 비춘다. 하층에는 배 뒤편에 큰 방이 만들어져 있고, 중간이나 작은 방에는 합쳐서 46인이 머무는데, 그 만들어진 것은 역시 하등이라 할 수 있다. 앞에는 판을 막아서 25간이 하나로 통하는 큰 방을 만들었는데,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상중하 삼등으로 말하면 비록 하등의 사람이라도 상중등의 뱃삯을 내면 상중등에 머물고 하중등의 인간이라도 하등의 뱃삯을 내면 하등에 머문다. 배의 중간에는 증기 기관이 있고 배 밖에는 양쪽으로 커다란 철 바퀴가 설치되어 있어서 명륜선(明輪船)이라고 불린다. 안쪽의 증기 기관이 한번 움직이면 배 밖의 '명륜'이 따라서 도는데, 배가 가는 것이 마치 나는 것 같다.³²⁾

⑥ 잠수복

한편 송현빈의 『동경일기』에는 일본인의 잠수복 사용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을 발견할 수 있다.

부두를 축조하는 사람들이 물 밑으로 들어갈 때는 머리에는 유리 항아리를 쓰고 몸에는 물에 젖지 않는 물건으로 만든 옷을 착용한다. 발에는 가죽을 이용해 만든 장화를 신는데, 장화의 바닥은 납으로 만들어 물에 들어가도 떠오르지 않게 한다. 옷의 위쪽은 유리 항아리의 아래 구멍과 연결되고 옷의 아래쪽은 가죽 장화의 윗구멍과 연결된다. 또 한 쌍의 통기(通氣) 도구를 물 밖으로 내어 놓는다. 물 밖의 사람이 통기 도구를 들고 그 움직임에 따라 이리저리 조종하여 공기를 통하여 하므로 종일 물속에서 작업해도 지장이 없다. 역시 정교하다고 할 만하다.³³⁾

(3) 국채 문제

거의 모든 견문 자료 속에는 당시 일본정부의 국채 문제가 언급되어 있는데, 아래에서는 몇 가지 사료를 인용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³²⁾ 宋憲斌, 『東京日記』, 15-16쪽.

³³⁾ 宋憲斌, 『東京日記』, 15쪽.

국채란 정부가 전 공채로, 세입의 부족을 보충하려는 것인데, 그 채권주가 내국인이면 내국채라고 하고 외국인이면 외국채라고 한다. 재정 운영에서 부득이 나타나는 권도(權道)로 일본의 봉건 시기부터 이미 시행되었다. 그러나 증서를 만들어 매매하게 된 것은 구미(歐美)의 법을 취한 것이다. 오늘날 지고 있는 국채의 합계는 삼억육천삼백삼십이만칠천이백칠십사원이다. 이상의 각종 국채는 앞으로 26년 기한으로 모두 갚겠다고 한다.³⁴⁾

여기서 언급한 “증서를 만들어 매매하게 된 것”이란 말은 당시 일본에서 이미 국채권 발행과 유사한 근대적 경제 운용 방식이 시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동시에 우리는 당시 일본의 국채 액수 역시 한 자릿수까지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이 숫자는 다른 유람단원의 기록과 비교해 보아도 큰 차이가 없는데,³⁵⁾ 당연히 당시 일본의 공식 통계에 근거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이 근대화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지출한 각종 비용은 상당히 많았는데, 조준영의 말에 따르면, “개혁이후 각국과 외교를 맺으면서 사절의 파견(差遣), 공사관(公使公廨)의 설치, 기계 설비에서 낭비가 많아졌다.”고 하였다.³⁶⁾ 또 민종목이 조사한 일본 명치 기묘년 7월에서 경진년 6월까지의 국가 예산 상황에 따르면, 1년 국가 수입 총계는 5,565만 원 남짓이고 국채 원금과 이자 상환, 각종 지출을 빼면 겨우 150만 원이 남는다.³⁷⁾

³⁴⁾ 閔種默, 『聞見事件』, 5-6쪽.

³⁵⁾ 趙淮永의 『聞見事件』에는 “內外新舊現在公債至爲三億六千三百三十二萬七千圓之多”라고 기록하였고(奎1311-1, 第3頁); 李憲永의 『聞見事件』에는 “自內國至外國而公債之漸積, 今爲三億六千三百三十二萬七千九百七十餘圓。”(奎1311-3, 第4頁); 嚴世永의 『聞見事件』에는 “國債積至於三億萬有餘”(奎1311-4, 第7頁); 姜文馨의 『聞見事件』에는 “內外國債猶爲三億五千八百四萬七千二百九十一圓”(奎15250, 第4頁)라고 기록되어 있다. 거의 차이가 없다.

³⁶⁾ 趙淮永, 『聞見事件』, 3쪽.

당시 일본의 국가경제 상황에 대해 조선 유람단원들은 각각 관찰자적 입장의 평가를 내놓고 있다.

【강문형】 국가 재정이 부족하여 인쇄국은 지폐를 제조하여 자신들이 먼저 사용하고 간민배들은 그 틈을 타서 가짜를 만든다. 진위가 섞여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금·은전의 경우 모두 서양 제국에서 유입된 것들이다. 비록 일본이 만전을 주조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종이 위의 헛된 말일 뿐이며 물가가 양등하여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기 어렵다.³⁸⁾

【민종록】 이른바 종이로 만들어 (金屬) 화폐의 값어치를 하게 한 것이 화폐이지만 화폐가 아닌 것과 같다. 그래서 얻은 자는 저장하려고 하지 않고 쓰는 자 역시 가볍게 여긴다. 이 때문에 화폐 발행 경로가 여러 갈래여서 물가가 뛰어오른다. 또 상품이 시장에 나오면 보통 금·은화는 물론까지도 서양인들에게 주고 바꾸어 가버리니,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생활은 점차 궁핍해진다. 형세가 편안하지 못해 예전만 못하다는 탄식이 없는 곳이 없다.³⁹⁾

【이현영】 국채가 쌓여서 3억만이 넘는데, 이는 30년 동안 쓸 예산에 해당한다. 이 한 가지 사실로 미루어보면 그 텅 비고 실질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지식인들의 걱정과 탄식이 언변에서 많이 발견된다.⁴⁰⁾

【조준영】 금·은화는 모두 외국인들 손에 돌아가고 동화와 지폐만이 국내에 유통된다.⁴¹⁾

【엄세영】 매이지 3년 11월에서 12년까지 금화 5,200여만 원, 은화 2,813만 여 원, 동화 486만 원, 총계 8,621만 9천 원을 발행하였다. 신화(新貨)가

³⁷⁾ 関種默, 『聞見事件』, 6쪽.

³⁸⁾ 姜文馨, 『聞見事件』, 4쪽.

³⁹⁾ 李憲永, 『聞見事件』,奎1311-3, 4쪽.

⁴⁰⁾ 嚴世永, 『聞見事件』,奎1311-4, 7쪽.

⁴¹⁾ 趙准永, 『聞見事件』, 6쪽.

이렇게 많이 발행되었지만 그 태반은 해외로 유출되어 무역 불균형을 보완하는 데 쓰였다. 그 나머지는 국내 관민들이 갖고 내놓지 않아서 매매에서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 지금 사용되는 것은 다만 정부에서 발행한 지폐 1억여 원과 각국 은행에서 발행한 지폐 수천 만 원이 있다. 근래 지폐 가치가 크게 감소하고 물가가 뛰어서 만민이 고통을 겪는다. 비록 그 원인을 짧은 시간에 알기는 어렵지만 지폐를 과도하게 발행하여 이런 폐해에 생겼다고들 하니, 그 설명이 타당해 보인다.⁴²⁾

상술한 자료에서 우리는 대략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추론할 할 수 있다. 첫째는 외부 국채 상환과 무역 적자 등으로 인한 결제가 모두 금·은으로 이루어지면서 일본 국내 금은화폐가 외부로 대량 유출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일본정부가 국가재정의 부족으로 인해 지폐 발행을 대량으로 늘리면서 일정 정도 국내 통화의 팽창을 초래하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관찰자인 유람단원 거의 대부분은 일본의 근대화 건설을 어느 정도 국내 민중 생활의 질을 대가로 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서 국채문제를 논의하는 까닭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유람단원들의 일본 국채문제에 대한 관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근대화 과정이 발전과 진보를 가져오는 동시에 불가피하게 얼마간의 부정적 요소를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중국을 막론하고 그 근대화 진행 과정의 긍정적·부정적 면모를 동시에 볼 수 있을 때, 이른바 근대화라는 문제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⁴²⁾ 関種默, 『聞見事件』, 7-8쪽.

2) 영선사 김윤식이 본 중국 근대화 광경

“신사유람단” 단원들이 일본 사회를 관찰하고 여러 방면에 대량의 문헌자료를 남긴 상황과는 달리 영선사 김윤식이 중국에 대해 남긴 중국 근대화 관련 자료는 제한적이었다. 김윤식이 남긴 기록들이 중국 근대화 발전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은 주로 공업제조 방면, 특히 군수산업에 집중되어있다. 그렇더라도 이 내용들은 대체로 당시의 근대화 광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윤곽을 제공한다.

청정부가 양무운동을 전개한 이후, 기계제조업은 군수산업을 통해 신속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비록 양무운동이 정치적인 면에서는 실패로 끝났지만 이 기간에 마련된 기계제조업의 기초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조선사신 김윤식의 눈에 통해 보면, 1882년 청조의 기계제조업 발전은 충분히 감탄을 자아낼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반면 중국인으로서 이 시기의 역사를 회고할 때 우리는 거의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이것은 아마 결과론적인 해석에 기인할 것이다. 타자의 눈을 통해 그 가려진 성취를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1) 천진 기기국

1882년 3월 2일(음력 정월 초3일) 처음 천진 기기제조국을 참관한 김윤식은 곧 광대한 규모의 기계 생산 광경에 감탄하였다. 그는 일기에서 당시 중국에서 보고 느낀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록하였다.

식사를 마친 후 다시 겸산(兼山)과 함께 기기(機器) · 번사(翻砂) · 목양(木样) · 화동(画图) · 전기 · 화약 공장을 차례로 참관하였다. 각각 커다란 증기 터빈이 있고 여러 작은 바퀴들이 따라서 회전하고 있었다. 아래에는 전동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위로는 철통이 가설되어 있는데, 연결된 수는

30간이다 수많은 기기들이 모두 하나의 터빈의 힘을 이용한다. 우측으로 도는 것, 좌측으로 도는 것, 아래로 구멍 뚫는 것, 옆에서 구멍 뚫는 것, 철을 자르는 것, 칼을 가는 것, 맷돌처럼 나무를 깎는 것들이 있었다. 동을 평평하게 펴는 롤러와 철을 녹이는 것들에는 냉수와 온수가 들고 난다. 마치 하늘의 일월·오성이 각기 그 경로를 따라 도는 것 같다. 빠르기는 종횡이 서로 다른데, 거의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가장 신기한 것은 전기가 부리는 조화로 이루어 형용할 수 없다.⁴³⁾

이밖에 김윤식의 기록에는 뜻밖에도 1882년 천진 기기제조국의 주요 기술의 핵심 요원들의 명단이 남겨져 있다.

동국수사학당(東局水師學堂) 한문교습(漢文敎習) 동원도(董元度)·고돈이(顧敦彝)·양춘선(楊春選), 양문교습(洋文敎習) 엄종광(嚴宗光)·허조기(許兆基)·조렴정(曹廉正), 양창대교습(洋檜隊敎習) 변장승(卞長勝).

수뢰학당(水雷學堂) 한교습(漢敎習) 소서종(邵瑞宗)·매영계(梅瑛桂), 양교습(洋敎習) 정우징(鄭宇澄).

남국(南局) 우성재창병(牛星齋昶炳)·공로경조여(龔魯卿照璽)·동예각(董藝閣), 동국목공방(東局木工房) 교습공장(敎習工匠) 후영순(候永順)·기기방(機器房) 교습공장(敎習工匠) 동수원(童修元)·왕기(王起)·손기당(孫起堂), 공두(工頭) 왕기순(王起順)·포의삼(鮑義柗)·양아생(梁阿生)·황윤추(黃潤秋), 목공두(木工頭) 주장경(周長慶), 동모방공두(銅冒房工頭) 조순(趙順)·진정(陳正)·장득발(蔣得發)·조득성(趙得成), 화약공두(火藥工頭) 왕영래(王永來)·류덕(劉德)·반기(潘起)·류장태(劉長泰), 강수(鑊水) 당명의(唐明義).

남국전창(南局前廠) 강서영(薦瑞永)·송서양(宋瑞陽)·오등고(吳燈高), 기기후창(機器後廠) 오봉산(吳鳳珊)·변사창(翻砂廠) 구양만(歐陽滿).

전기(電氣)·화도(畫圖)·목양(木樣)·곽량순(霍良順), 또 증좌덕(曾左德)·반명담(潘明譚)·문화(文華) 등 삼인이 있었다.⁴⁴⁾

⁴³⁾ 「領選日記」, 516쪽.

⁴⁴⁾ 朝鮮의 학생과 장인들이 機器局에 입학하자, 金允植은 上下에 뇌물을 주는데, 機器局의 핵심 요원들에게 일일이 送禮하였고 아울러 送禮清單을 日記에 기록하

천진 기기제조국은 당시 중국 국내 근대화 기술의 최고 수준을 대표하는 곳이었다. 때문에 이 명단은 오늘날 천진 기기제조국의 역사를 연구할 때 가치가 있다. 이 명단을 통해 당시 천진 기기제조국의 규모와 인력 배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거대한 기계 생산 광경 외에도 김윤식이 천진에 있는 동안 목격한 많은 것들은 그에게 매우 새로웠다. 이들은 김윤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2) 화륜선

김윤식은 천진(天津)에서 중국의 첫 번째 화륜선(火輪船) 시험 건조를 목격하였다.

동성(東城)의 아래쪽에는 작은 화륜선이 있는데, 새로 건조된 것이다. 성 밖 작은 하천에 세워 두었는데, 군인들이 도량을 파고 물을 채워서 천진 까지 운송할 것이라고 한다. 이중당(李中堂)은 장차 화륜선 건조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우선 시험 삼아 만들었기 때문에 작다고 하였다. 밤이 깊어서 배에 오를 수는 없었고 건조하는 광경만을 살폈다.

16일 …… 이에 어제 갔던 곳에 올라가 보았다. 화륜선의 길이는 8간이나 되었고 폭은 2간이 넘었다. 선두에는 증기 연통과 철륜이 설치되어 있다. 중간에는 전동 장치가 연결되어 있다. 내용은 갖추어졌으나 규모가 작다. 안에는 의자가 설치되어있고 방바닥이 선명하다. 사면에는 유리창이 설치되어있고 채색 장막을 드리웠다. 벽에는 많은 시계들이 걸려있다. 이 곳은 중당이 거처하는 곳이라고 한다.⁴⁵⁾

였다. 이 명단은 이렇게 남겨진 것이다. 『領選日記』, 520-521쪽.

⁴⁵⁾ 『領選日記』, 518쪽.

(3) 전보

김윤식은 중국 최초의 전보 선로 가설을 목격하였다.

이쪽에서 천선이 보인다. 천진에서 시작해 상해에 이르는데, 2,000여 리이다. 수십 보마다 장대를 세우고 구리선 두 줄을 걸어서 선로를 연결하였다. 행인들이 그 아래를 왕래하는데도 감히 손상시키는 일이 없으니, 법규의 엄중함을 알 수 있다.⁴⁶⁾

(4) 전화

김윤식은 또 중국의 전화기 모방 제조를 목격하였다. 이것은 무척 흥미로운데, ‘신사유람단’의 일본 시찰 자료에서는 시종 전화와 관련된 기록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기국에 가서 어화통(語話筒)을 보았는데, 양 귀통이에 구리선이 매여 있었다. 귀 기울여 들으면 대략 식별할 수 있다. 역시 외국에서 사온 것이다. 이 공장의 공두(工頭) 주장경(周長慶)은 장차 모방해서 만들 것이라고 한다.⁴⁷⁾

(5) 강도와 서양식 총

이런 흥미로운 사건도 있다. 김윤식이 천진에 있는 동안 일찍이 청 정부에 보고하였던 학생 강도 사건은 매우 흥미롭다. 김윤식의 보고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어제 아침 학생 이현선은 천진기기국을 출발하면서 여장(旅裝)과 은물(銀物) 등의 물건을 휴대하였다. 길을 간지 50리만에 금종하(金鍾河)를 지

46) 『領選日記』, 472쪽

47) 『領選日記』, 564-565쪽.

나는데, 영하현(寧河縣) 관할인 대봉교리(大封橋里) 근처, 북쪽으로 부어갑(怀鱼闸) 18리, 남쪽으로 산령장(山嶺莊) 15리 지점에서 4명의 도적을 만났다. 나이는 30대에서 20대까지 들쭉날쭉했다. 모두 말은 타지 않았고 각자의 손에 서양식 소총을 들고 있었다. 소유한 은자(銀子)와 의복 등을 모두 빼앗겼다. 다행히 목숨은 건져서 돌아왔다.⁴⁸⁾

우리는 이 강도 사건 기록 속에 나오는 4명의 강도는 놀랍게도 “각자의 손에 서양식 소총을 들고 있었다.” 이렇게 신식무기를 활용한 강도 사건은 당시 중국에서 서양식 총이 이미 희귀한 물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김윤식의 다른 몇몇 기록을 통해 보아도 당시 천진 기기국의 군기 제조 생산량은 이미 높은 수준에 있었는데, 이 강도들이 ‘서양식 소총’을 사용한 것을 보면 국내에서 생산된 서양식 총의 가격은 결코 비싸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 작은 사건을 통해 당시 청조의 기기제조업의 발전 상황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4. 맷음말

19세기 한국에서 발생한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은 일정 시기 근대화 개혁을 경험했던 동시기 중국과 일본 양국의 역사적 모습을 보여준다. 비록 양자가 나아갔던 방향이 완전히 동일하진 않았지만, 한 가지는 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양국의 근대화 개혁이 모두 실제적인 성과를 얻었고 동시에 몇몇 문제들이 존재하였다는 점이다. 전면적인 서구화를 지향했던 일본의 근대화 개혁은 궁극적으로 근대화의 성과를 사회 각개 각층에 뚜렷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전면

48) 『領選日記』, 510·511쪽.

적이고 급진적인 발전은 일정정도 국가재정의 고갈을 야기하였다. 중국의 정황에 대해 말하면, 일정 범위 내의 제한적인 근대화 개혁, 구체적으로 기계 제조업과 군수 산업 위주의 선행적 발전은 마찬가지로 궁정적인 성과를 얻었고 또 일본에 비해 낙후되었던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국의 근대화에서 제한성의 문제는 아주 심각했고 이미 획득한 근대화 성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시 한국의 정황을 살펴보면, 조선왕조가 개화와 무비자강의 필요성을 의식하였을 때는 시작은 늦었지만 그들이 맞이한 기회는 사실 전례 없이 좋은 것이었다. 이웃의 중·일 양국이 일정기간 근대화의 길을 탐색하면서 각종 경로를 통해 쌓았던 경험과 교훈이 전해진 후였으므로, 조선은 사실 양쪽의 경험을 종합하여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학습과 실천을 진행할 수 있었다. 또 그들은 바로 이런 일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당시 문제는 그들이 자기를 발전시킬 만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내우외환의 전반적인 사회 환경은 그들이 순조롭게 발전적인 진보로 나아가는 데에 방해가 되었다. 앞의 이런 정황들을 연계해보면 우리 앞에는 한 폭의 완정한 19세기말 동아시아 근대화의 모습이 나타난다.

‘신사유람단’과 ‘영선사’의 파견은 우리들에게 중·일 근대화 개혁의 모습을 관찰하고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사실 이런 기회의 출현은 우연적이거나 유일한 것은 아니다. 근래 학자들은 한국 소장 문헌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대개 두 종류의 자료에서 나타났다. 하나는 조천록(朝天錄)과 연행록(燕行錄) 자료, 즉 조선 사절이 중국을 왕래한 기록이다. 다른 하나는 통신사 문현, 즉 조선 사절이 일본을 왕래한 기록이다. 따라서 이 두 자료를 함께 연계시킨다면 특정 시기 중국과 일본 양쪽의 정황과 관련된 동시대 기

록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 본문에서 언급한 '신사유람단'과 '영선사'는 엄격히 말해 연행사와 통신사 기록의 범주에는 들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상술한 사료들의 상황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이런 사료들은 관련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연구 방향과 성과의 도출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이는 사료적 가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료 상황이 형성된 역사적 배경과 관련해서도 흥미롭다. 즉 한국에 보존된 사료를 통해 중·일 양국의 역사 서술을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다기보다 오히려 한국 역사가 동아시아 3국 관계 속에서 본래 흥미로운 중간자적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료의 보존이나 역사적 역할의 특수성과 관계없이 한국이 동아시아사 연구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오늘날 역사학계의 많은 학자들에게 동아시아사, 동양사 등의 표현 방식은 생소하지 않다. 학자들은 때때로 이러한 표현 방식의 지지자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러한 표현은 동아시아에 대한 전체적인 고찰을 진행하는 하나의 이념이자, 방법적 합의가 될 것이다. 서구학계가 아시아사, 동아시아사를 강조하는 까닭은 그 학술 맥락 속에서 출현·발전한 지역사 연구의 갈망에서 기원한다. 동아사이라는 이 하나의 범주의 직접적 대상인 중국·일본·한국에 대해 말하면 학계가 이를 수용하기 위한 관념상의 큰 문제는 없다. 동아시아 3국 학계가 동아시아사 연구를 중시하는 것에는 서양 학문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부정 할 수는 없지만, 결국 각자의 고유한 학술·문화 전통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중국학계에서는 지금까지 중화문화권·유가문화권 등의 표현 방식이 있었다. 일본학계는 비록 '탈아입구(脫亞入歐)'의 측면이 있지만 '대동아(大東亞)'라는 학술 전통 역시 시종일관 기저에 흐르고 있었다. 한국학계는 줄곧 동양사

연구를 중시하는 전통이 있었다. 현재의 실제 상황이 어떻든 의심할 수 없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동아시아에 위치한 3국 학계가 자신들의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서구의 학제에는 없는 장점과 더욱 넓은 발전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동아시아사 연구가 강조하는 것은 동아시아를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하여 전체적인 고찰을 진행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의 달성을 사실 결코 간단하지 않다. 여기에서 전체라는 말이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내재적인 결합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아시아라는 하나의 지역적 범주 안에서 어떤 특정 현상이나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서로 다른 국가 혹은 지역 간의 모종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는지, 또 그것을 통해 모든 동아시아 문제의 이해와 인식에 보탬을 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른바 동아시아사는 단지 동아시아를 하나의 공허한 기호로 삼아서 각국이 각자의 입장과 각도에서 서로 다른 서술을 진행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사라는 관념은 문제를 사고하는 하나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이것은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종전의 동아시아 3국의 국가별 역사 전개를 기준으로 한 서술이 동아시아 지역의 전체 구조를 충분히 포함하는지를 다시 고려한다면 우리는 동아시아라는 거대한 배경 아래에서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